

지역 매 아리

완주군, 소방시설·교차로 등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완주군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고질적인 안전문제 관행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중점단속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승강장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간에 불법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예정돼 있어 계도의 효과도 노린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중점개선 불법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므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SMS)'를 시행 중이다.

서비스 가입신청은 완주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 신청과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28일까지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위생 지도점검

완주군이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의 위생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27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위생안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그대로 섭취하거나 일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단순처리 농산물의 포장, 보관, 판매과정 및 작업장 전반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수가 적정한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임에도 마도류 영업 행위를 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위해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수거검사 부적합에 따른 제품은 즉시 폐기, 회수 조치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거검사와 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역안전지수 개선 박차

김제시, 분야별 담당부서장 참석... 취약분야 등급 향상 방안 논의 등

김제시는 27일 2019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회의를 열어 안전지수 등급 향상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한 4개분야(자살, 감염병, 교통사고, 화재)의 대책마련을 위해 김제시 분야별 담당부서장, 김제경찰서, 김제소방서,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참석하여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과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화재·범죄·자살·감염병·자연재해·생활안전 7개 분야에 대한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써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다.

김제시는 지역 특성상 재난약자,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고령자 수가 많아 취약·경감지표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교통사고, 자살, 화재, 감염병 등 4대 분야 사망자 수를 2017년보다 10%(6명) 줄이는 등 2019년에는 전 분야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교통사고 분야 5등급 탈피를 위해 김제시는 지방도와 시군도 과속 구간,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교통단속CCTV 집중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9년 6개소를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제시는 27일 2019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조명등, 방호울타리, 통합안전표지판 등을 확충할 계획이며, 사고다발지역 및 보행자위험요소지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을 통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기 보급한 농약안전보관함을 10개마을 500가구에 대해 추가 보급하고, 자살수단 접근제한 스티커 제작 배포, 자살예방

상담지킴이 2천여 명 양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법정 감염병의 80%를 차지하는 결핵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청소년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김제소방서 협조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분기별 1회 현장방문행정, CEO안전통화제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680여 세대)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민 고견을시정에 적극 반영”

김제시, 시민과의 대화 성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19개 읍면동에 대한 2019년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열띤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첫날 죽산면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 진봉면까지 하루에 2~3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지난해 시정성과와 올해 시정 발전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였으며,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박 시장은 2019년 시정 방향을 '다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정하고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이 바로서야 나아갈 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의 자세로 김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역점사업으로 김제 경제도약 조례 제정, 마을환경 지킴이경영도당 급식도우미 등 김제형 일자리 창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

성, 읍면동 특장맛 개발·운영, 지평선화당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기찬 김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장에서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고견과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주민 건의사항은 현장에 참석한 부서장들에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해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



김제시는 지난 25일까지 19개 읍면동에 대한 2019년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접수된 시민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은 70여건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공용주차장 조성, 옹배수로 개선, 관광지 개발 및 인구유입 방안 등 시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제시는 제안된 정책 및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과 행정절차를 거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최대한 빨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과 타기관 협조가 필요한 건의는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예산 확보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박 군수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군청 문화강좌실에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공직자 마인드 함양 특강을 진행했다.

완주군, 신규 공무원과 'talk talk'

박성일 군수, 공직자 마인드 함양 특강

박성일 완주군수가 신규 공무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 공직자에 대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은 박 군수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임용 6년 이내 7급이하 공무원 24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마인드 함양 특강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평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 군수가 공직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젊은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마인드를 심어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의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직접 강사로 나선 박성일 군수는 공무원의 본분인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군민행복을 최상위 가치로 여기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 군수는 "주민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을 해나가다 보면 효율성과 효과는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생활 초반은 백지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때 밀그립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본인의 미래, 더 나아가 완주군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신규 공무원들은 조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며 조언을 얻기도 했다.

한 신규 공무원이 약성민원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자, 박 군수는 "앞으로의 리더는 갈등해결의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며 "시간에 따라 대응방법은 다를 것이고, 무엇보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공무원시험 준비반 수강생 모집... 내달 4일~ 6일까지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공무원시험 준비반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김제시는 지난 22일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거쳐 (주)에듀스와 박문각을 운영업체로 최종 선정하고, 지난 26일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

공무원시험 공부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에 대한 전문강사 직강, 전 과목 동영상 강의 지원, 관리형독서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해서 3월 초 운영업체 (주)에듀스와 박문각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그간 궁금증을 이어왔던 공무원시험 준비반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직강은 초보생 위해 국가·지방직 9급 수준으로 운영되며, 동영상강의는 7급·9급·경찰·소방·관세·세무 등 (주)에듀스와 박문각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모두 제공, 다양한 직렬·직급의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겨냥한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준비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집인원은 총 90명이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20%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을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지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지 2년이 경과한 자의 자녀 및 배우자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응시가능하다.

응시원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평선화당에서 교부받아 지평선화당 행정실에서 현장접수하고 이후 선발시험을 통해 최종수강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